

손 석 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우리 집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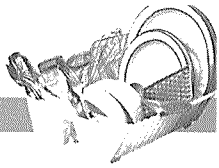
신 경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면 종종 부부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부부는 서로 잠깐 눈치를 보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난 듯 말한다. “당신이 얘기해요” 이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네요.” 이 순간 필자는 잠시 곤혹스러워진다. 부인의 얼굴을 쳐다본다. 부인

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의사를 바라보면서 “전에 아파트 입주자 모임 때문에 남자랑 통화한 것 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사람까지 직접 만나봐서 아닌 것 다 확인했는데 또 그러네요. 요새는 매일 30분 간격으로 핸드폰 걸고 위치 확인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이쯤 되면 사태의 전말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 남편은 의치증(의학용어로는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불린다)을 앓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도 부부가 함께 들어 왔는데 남편이 부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얘기를 꺼낸다. “얼마 전에 등이 가려워서 집사람하고 애들에게 등을 긁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등에 여자 손톱 자국과 애무 자국이 있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일 부부관계를 요구해요.”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받아친다. “나는 당신이 돌아오길 바랬어. 그런데 당신이 여전히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부인이 의부증을 앓고 있는 경우였다.

부부간의 갈등과 불만은 의심을 낳는다

두 사례 모두 부부간의 갈등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첫 사례의 경우 부인이 매우 활발하고 똑똑해서 각종 동네 모임을 주도하고 자녀 학교의 여러 일에도 관여를 해 왔다. 또한 재테크에도 능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집을 과감히 구입해서 집 값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반면 남편은 성실한 자영업자로서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워낙 “쑥맥” 이고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 싶어했다. 부인이 따뜻한 저녁을 차려 오고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부인은 집 바깥 일로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인을 뭐라고 하면 ‘그깟 일로 왜 그러지.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에는 내 힘도 컸다’ 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점차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혹 이 사람이 밖에서 나보다 더 재미있고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 번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그 다음부터는 견잡을 수 없이 그러한 상상이 머리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부부는 남편이 안정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역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짠 월급에 늘 생활은 팍팍했고 더구나 남편이 장남이었는데 시동생 두 명은 경제적



으로 더 여유가 있었다. 부인은 이러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행여 남편이 기라도 죽을 세라 남편에게는 유명 메이커의 옷도 사 주었지만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돈을 쓰지 않았다. 몇 년 전 집을 사들인 후에 비로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으나, 그 후부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다. 자주 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은 한 번도 부인을 위해서 약을 사다 주거나 먹을 것을 챙겨 준 적이 없었다. 또한 부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면 “그거 꼭 필요한 거야?”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부인은 매우 서운했다. 부인은 속으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도 사 입지 않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알뜰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게 뭐야?’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부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이 주변 친구의 능력 있는 부인들에 대해서 칭찬과 부러움을 보낼 때였다. 부인은 집에서 살림만 했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여성을 좋아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친구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듯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부부사이를 들여다보면 오래 전부터 상호간 갈등과 불만이 깔려 있었고 특히 어느 한 쪽의 열등감에서 병의 씨앗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사랑의 확인을, 나중에는 증거 수집으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배우자가 끝없이 자신을 안심 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몇 분이 몇 다 하고 핸드폰을 두드리라는 것이 예삿일이고 심지어 지나치게 잦은 부부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자신만 사랑하게 하여서 바람 피울 틈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벗어나면 즉 아무리 사랑의 확인을 해 봐도 의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면 배우자의 거짓말(?)을 뒤집어 놓을 만한 증거 수집에 몰두하게 된다. 가령 자신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전화기의 놓인 모양이 바뀌었다거나 배우자의 머리 모양이 흐트러졌다는 식이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다. 자신이 잠이 든 사이에 배우자가 몰래 방에서 나가 미리 집 앞에서 대기해 있던 그 사람과 성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남편이 오늘 아침 평소보다 10분 늦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렇듯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증거로서 상대방을 의심할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부간 사랑과 신뢰의 회복이 병을 이긴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낫는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의처증(의부증)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서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 당사자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병에 걸린 한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그저 약이나 잘 먹으라고 하는 식으로는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상담(치료)을 통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해 나가고 이를 교정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과 내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정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간다면 이 병은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의심하는 생각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